광주 도심 한복판에 첫 창고형 할인점 뜬다

3040·3~4인 가구 공략 3000개 품목·단독상품 구성 50%
직영 빵집 '풍미소…와인·위스키 성지 '보틀 벙커' 4월 오픈
"담양·나주 등 인근 시·군까지 공략 연 매출 1000억원 기대"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오늘 개장

창고형 할인점 무주공산으로 여겨졌던 호남권에서 롯데가 한꺼번에 3개 점포를 내며 시장공략에 나섰다.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는 유독 호남권 진출에서 고배를 마셨다.

코스트코는 광양과 순천, 전주에서 지역사회 반대로 출점을 포기했고, 남악에 들어서려 했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4년 만에 무산이 확정되며 지난해 1만3000여 ㎡ 부지를 팔았다. 롯데마트의 경우 기존 마트를 새단장해 출점하느라 반감을 줄일 수 있었다.

광주 첫 창고형 할인점인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정식 개장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점포를 찾았다.

매장 1~3층·주차장 4~6층, 1만3100㎡(4000평) 규모로, 앞서 19일 문 연 전주 송천점 보다는 3000㎡ 정도 더 크다.

맥스 상무점은 도시 외곽에 자리잡은 다른 매장과 달리 공공기관과 금융사, 호텔, 유흥지가 몰린 도심 한복판에 있다. 반경 10㎞ 이내 광주 전역이 핵심 상권이다. 담양과 장성, 화순, 나주 등 인근 시·군을 광역 상권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27일 문 여는 맥스 목포점은 해남, 영암, 진도 고객까지 유입할 생각이다.

신주백 롯데마트 맥스 부문장(상무)은 호남에 공들이는 이유에 대해 "해볼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광주·전남에서 대기업 진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차로 2시간 거리인 대전 코스트코까지 가는 수요를 생각하면 기존 마트의 2배 수준인 연 1000억원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맥스는 호남권 3곳을 필두로 연내 10곳, 내년까지 20곳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신규 출점지에는 순천과 광양, 익산, 군산 등이 후보에 올랐다. 기존 창고형 할인점에서 차지했던 2%대 비중을 3년 안에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롯데가 창고형 할인점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광주에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을 열며 21일 첫 공략에 나선다.

지상 주차장에서 내려오며 가장 먼저 마주하는 3층 점포의 '얼굴'은 오는 4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 여는 '보틀 벙커'이다.

맥스 상무점에는 지난 연말 제타플렉스(롯데마트 서울 잠실점)가 야심차게 선보인 주류매장 '보틀 벙커' 2호점이 들어선다. 일정 금액을 팔찌에 충전하면 다양한 주류를 마셔보며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와인과 위스키 성지'로 자리잡은 잠실 보틀벙커는 한 달 매출 2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층에서는 하이마트와 다이소, 오는 3월 문 여는 '한샘' 가구 전문점 등 특화매장을 만날 수 있다. 쇼핑으로 허기진 고객들을 유혹할 즉석 피자점 '치즈 앤 도우'도 자리잡고 있다.

실질적인 매장 입구로 여겨지는 2층은 가공상품과 홈패션 등이 매대를 채운다. 다른 창고형 할인점에 들어설 때 높은 층고에서 느껴지는 웅장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기존 마트 점포의 뼈대를 유지한 탓이다.

맥스 상무점은 대형마트 판매 상품 2만개 가운데 1~2위 3000개만 골라 선보인다.

대형매장 매출의 60% 이상 비중을 30~40대, 3~4인 가구가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선호할 만한 명품 브랜드와 생활용품 등에 힘을 줬다.

와인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과제빵류 등 맥스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상품 구성비를 50%까지 높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에 들어서며 맞닥뜨린 직영 빵집 '풍미소'에서는 분주하게 개점 준비를 하는 유명 요리사 강레오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케이크와 각종 빵에 담양 딸기와 진도 대파를 사용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며 "전날부터 광주에 머무르며 직접 조리법을 고안한 26가지 베이커리의 제조·포장·진열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1층 식품매장은 하나의 거대한 냉장고 같은 인상을 준다. 성인 키 2배 높이의 산업용 냉장고가 매장 한 가운데에 자리잡아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꺼내 진열할 수 있도록 했다.

50m 넘게 'ㄷ'자 모양으로 뻗어진 축산매장은 맥스 상무점의 자랑거리다. 동물복지를 지킨 냉장육과 달걀, '프라임급' 수입 소고기를 즐길 수 있다. 맥스 상무점은 축산 매출 비중을 일반 마트의 2배 이상으로 높였다.

롯데마트 맥스는 연내 '맥스 온라인몰'을 열어 비대면 소비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대형마트가 쉬는 날 함께 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62.68 (+20.40)
↑	코스닥	958.70 (+24.80)
↑	금리 (국고채 3년)	2.119 (+0.046)
↑	환율 (USD)	1192.40 (+0.70)

현산 주가 '와르르'

52주 신저가 갈아치워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HDC현대산업개발이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8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 전날보다 3.14% 내린 1만5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1만43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7월8일 장중 세운 52조 최고가인 3만3400원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주가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부터 8일간 흐름을 이어가 이 기간 40.3% 떨어졌다.

현대산업개발의 시가총액은 6000억원 이상 증발해 장중 1조원을 밑돌았다가 종가 기준으로 1조150억원으로 간신히 1조원에 턱걸이 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선 철거 비용과 피해 보상금 등을 포함하면 현대산업개발에 최대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시 동구는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폐업지원 확대

중기부, 193억원 증액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지원 사업규모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 227억원에서 올해 42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점포철거 비용의 경우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사업정리 컨설팅부터 점포 철거까지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은 일괄 지원 체계로 개편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2만7141건의 소상공인 사업정리를 지원했으며, 분야별로는 점포철거 1만4234건, 사업정리 컨설팅 1만353건, 법률자문 2429건, 채무조정 125건 등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잔금 없어 아파트 입주 못해" 사상 최고

미입주 사유 조사, 10명 중 4명 답해…기존 주택 매각 지연 35.2%

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여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 10명 가운데 4명은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셈이다.

이어 '기존주택 매각 지연'(35.2%), '세입자 미확보'(20.4%), '분양권 매도 지연'(1.9%) 등의 순이었다.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 비율은 같은 해 11월(29.3%) 대비 11.4포인트 급등한 것이자 2017년 6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월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는 같은 해 10월의 34.1%로, 이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으로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 예정이라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만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전국 입주율은 80%대의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면서도 "올해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잔금대출을 못 받아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연합뉴스

영·섬유역본부 투명·윤리경영 다짐 20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김현식·앞줄 왼쪽 6번째)가 광주시 서구 치평동 본부에서 '클린 K-워터, 안전·청렴실천 국민 약속' 행사를 열고 투명·윤리적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 · 고객 · 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 · 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굿 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 · 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화정지점 062)372-0421~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운천지점 062)371-2772~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